

해양안보를 위한 카보타지의 확립에 관한 고찰

김성국* · 김여중**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 합동군사대학교

A Study on the Cabotage for Maritime Security in Korea

Sungkuk KIM* · Yeaujung KIM**

* Department of Commerce and Trade, Sungkyunkwan University, **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핵심용어 : 카보타지, 해군, 선원 교육, 해양력

Key Words : Cabotage, Navy, Seafarer education, Sea Power

1. 개요 및 연구목적

무역의 보호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주의 무역의 확산에 따라 자국 해운에 대한 보호주의도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하지만 무역의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국내의 항만간 운송은 자국의 해운이 담당하는 카보타지(cabotage)는 시대를 불문하고 국가의 고유한 주권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해가 필요하다.

2. 카보타지의 의의

오늘날 해양을 둘러싼 레짐(regim)은 “좁은 領海와 보다 넓고 자유로운 公海” 개념이 근간을 이루었다. 이것은 해안으로부터 연안국의 독점적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가급적 제한하고 이 범위 밖의 나머지 해양영역은 어느 국가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 해운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안보라는 측면이 강하다. 경제학의 고전이며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간을 만든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조차 해운은 국방상의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대전 중에 해군의 신속한 배치와 대서양,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함대의 운영에는 항상 준비된 선원과 선박 건조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카보타지의 확립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업이 해외에 종속되어 있을 경우에 자국에 필요한 적기의 선박발주는 불가능할 것이며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초과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는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선원공급이 해외의존적인 국가에서는 화물의 운송이 불가능하다. 물론 우수한 선원에 의한 해군의 항해 능력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역 자유주의와 보호주의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던 미국은 오늘날까지 Jones Act(1920)를 통해 자국의 해운, 선원양성,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선박법과 해상운송법을 통해 카보타지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3. 해양안보를 위한 카보타지

국내 항만간의 운송을 자국적 해운선사가 담당하는 이유로서 최근에는 운송안보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무제한적인 이동의 자유를 이용한 테러행위 시도, 불법이민의 통로로 활용되는 해상이동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화물이동이 안전하지 못할 경우 무역으로 생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안전한 운송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운송안보이다.

4. 결론

해상을 통한 운송안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하므로 카보타지의 확립이 더욱 요구된다. 운송안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인 선원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우수 선원인력은 해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에 해군력 강화에도 직결된다.

국가별 카보타지 성격



자료: Mary R. Brooks, "Liberalization in Maritime Transport." ITF Paper 2009-2.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Paris, 2009, p. 5.

* First Author : altasea@naver.com, +82-2-760-0471

† Corresponding Author : yj6988@hanmail.net, +82-42-878-2600